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 2025년 하반기 서바이벌 예능 판도를 뒤흔든 흥행 돌풍! '저메추' 열풍을 일으키는 메이크업 화제!

2025. 11. 6.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이 예능 시청 만족도 1위, 공개 후 5주 연속 쿠팡플레이 인기작 1위를 수성하며 2025년 하반기 서바이벌 예능의 판도를 새롭게 쓰고 있다. 회차마다 "메이크업의 경지를 재정의했다"는 호평을 이끌어낸 명장면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 폭의 예술작품을 연상시키는 역대급 결과물들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 아트적 완성도가 폭발한 전설의 시작 '붉은 말' 미션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K-뷰티를 대표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색깔로 치열하게 맞붙는 초대형 메이크업 서바이벌이다. 서바이벌 초반부터 강렬한 반향을 일으킨 라운드는 바로 1:1 데스매치 미러전 '붉은 말' 미션이다. 특히 파리 금손은 백성민 작가의 작품 '붉은 말'에서 영감을 받아 붉은 피그먼트와 버건디 계열의 유화 텍스처로

말의 근육, 힘줄, 혈관의 방향성까지 얼굴 위에 세밀하게 재현했다. 메이크업 공개 직후 **“진짜 영화 포스터 아니야?”, “메이크업이 아니라 회화 같았다”, “붉은 말이 아니라 불타는 전설을 메이크업으로 소환했다”** 등의 반응을 이끌어냈고, 이 미션을 기점으로 ‘저메추(저스트 메이크업 추천)’라는 유행어가 등장하며 프로그램의 신드롬을 예고했다.

#2.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문 로봇 피부 구현 ‘퓨처리즘’

이어 ‘퓨처리즘’ 미션에서는 미래 인간의 피부를 상상해 낸 작품들이 탄생했다. **네버데드퀸**은 실리콘 질감, 메탈릭 하이라이트, 회로를 연상시키는 아이 메이크업으로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선보였다. 인조적이면서도 감정을 품은 로봇의 얼굴을 완성한 결과물을 통해 **“CG가 아니라 진짜 메이크업이라고?”, “인간도, 로봇도 아닌 새로운 생명체의 얼굴이다”, “피부 사이에 미래가 들어온 기분”** 등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 SNS에서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3.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든 연금술 ‘투어스(TWS) 무대’

K-POP 미션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투어스(TWS)의 무대 메이크업은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조명, 카메라 앵글, 땀과 움직임까지 고려한 무대 메이크업은 그야말로 'K-POP을 메이크업으로 완성해 낸 순간'이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팬덤명 '42'와 투어스(TWS)의 서사를 메이크업으로 풀어낸 **팀 손테일**, 'Lucky To Be Loved' 곡의 손동작 안무를 강조하는 크리스털 파츠 연출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팀 파리 금손**은 극적인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이를 접한 K-POP 팬덤 시청자들은 **"무대 위의 메이크업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그룹 세계관과 메이크업의 연결은 신의 한 수였다", "정말 팬들을 위한 완벽한 연금술이다"**라는 뜨거운 호응 속에 K-POP과 K-뷰티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다.

#4. 정샘물마저 울린 감정의 메이크업 '카마데누'

정점의 감동을 만들어낸 순간은 고상우 작가의 그림 '카마데누(Ka-madhenu)'를 주제로 한 세미 파이널 미션이었다. 신화 속 신성한 암소, 모성, 여신의 얼굴을 메이크업으로 재해석하는 과제 속에서 참가자들은 얼굴 위에 감정과 이야기를 새겼다. 참가자들은 블루톤의 피부, 금빛 하이라이트, 젖은 듯한 눈가가 어우러지며 한 편의 회화 작품을 완성시켰다. 그림 속 소를 실제로 보는 것 같은 디테일과 세밀한 결 표현으로 **손테일**의 메이크업이 주목받은 가운데, **오 돌체비타**는 **실제 어머니를 모델로 하며 감정의 진폭을 극대화시켰다. 심사위원 정샘물조차 "이건 기술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인 메이크업"이라며 눈물을 보였고 시청자들 또한 "메이크업으로 위로받은 것은 처음", "예술 앞에선 장르도 없다"**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5. 인어의 절규와 염원을 새긴 메이크업 소설 ‘인어 사냥’

배우이자 작가 차인표의 소설 '인어 사냥'을 기반으로 한 어미 인어 메이크업은 가장 극적인 미션으로 꼽힌다. 시각적 단서 없이 오직 텍스트만으로 고통, 희생, 모성을 시각화해야 했던 미션에서 참가자들은 은빛 눈물, 젖은 속눈썹, 물방울 파츠로 인어의 절규와 염원을 얼굴 위에 새겨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메이크업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시", "이 장면으로 TOP 3는 이미 결정됐다"** 등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시청량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저스트 메이크업>은 단순한 뷰티 경쟁을 넘어 회화·패션·문학·공연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전례 없는 무대를 완성하며 **"지금 이 시대 가장 예술적인 서바이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술의 경지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세계를 보여준다"**(씨네21 오수경 기자), **"기술 아닌 태도로 아름다움을 말하다"**(국민일보 김승연 기자), **"K뷰티 서바이벌 새 장 열었다"**(JTBC연예 유지혜 기자), **"이제 K-뷰티에 열광할 시간"**(뉴스컬처 노규민 기자) 등 국내 평단들도 극찬을 쏟아내고 있다. 쿠팡플레이 인기작 5주 연속 1위, 예능 시청 만족도 1위라는 기록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7일(금) 최종 우승자가 공개될 마지막 회차에 대한 기대감 역시 뜨겁게 고조되고 있다.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 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되며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